



예수 · 노동 · 가정

한국가톨릭노동장년협의회 서울연합회 : 관찰 · 판단 ·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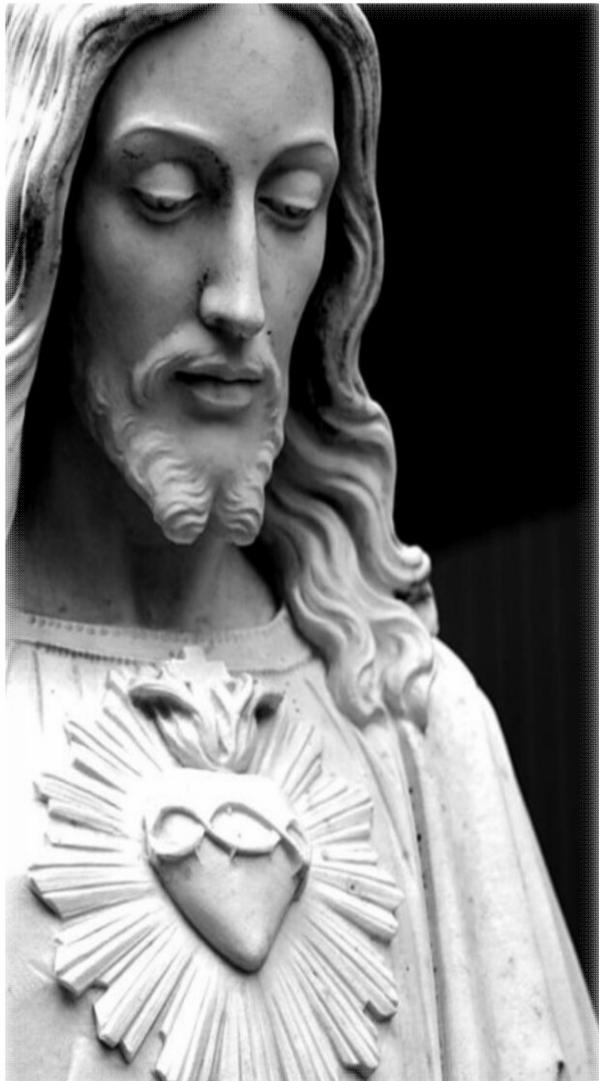
| 발행처 | 한국가톨릭노동장년협의회 서울연합회 | 담당사제 | 이주형 세례자요한(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 주 소 | 0287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95 (보문동5가) 5층 | 전화 | 02-953-0393 2019년 4·5·6월

“자녀들아, 너희들을 향한 내 이 불티는 사랑을 보거라. 헛되고 헛된 길에서 얼굴을 돌리고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너라. 너희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 애끓는 사랑으로 이글거리는 내 성심(聖心)에게로 달려오너라. 내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은총과 사랑의 강물을 마음껏 마셔 허기와 갈증을 해소시키거라.”

오늘도 예수 성심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반역과 배신으로 인해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구세주의 상처 입은 성심에서 우리 교회가 탄생되었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 부서진 예수 성심에서 까지 성사가 흘러나왔으며, 그 성사는 큰 강이 되어 메마른 사막을 비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성심성월을 지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소원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이가 당신 성심께로 기꺼이 달려가 끊임없이 구원의 샘물을 펴마시는 것.



J.O.C 와의 만남

노희철 베드로 신부(수원가톨릭대학교 영성지도신부)

내가 가톨릭노동청년회(J.O.C)의 회원들과의 만남을 시작하게 된 것은 1991년 수원가톨릭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부터이다. 당시 '노동사목연구회'라는 동아리 활동을 하던 나는 해마다 신학교를 방문해서 신학생들과 교류를 하던 가톨릭노동 청년들(J.O.C)을 처음으로 만나, 하루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당시 신학과 1학년생은 외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새내기였던 나에게 가톨릭노동 청년들의 신학교 방문은 아주 큰 위로와 기쁨이었다. 훈련소에 입대한 군인처럼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팠던 나'에게 가톨릭노동청년들의 방문과 더불어 제공되는 고기와 주님(???)은 큰 위로와 만족감, 만복감(滿腹感)을 주었다. 제사보다는 젓밥에 더 관심이 있었는지도,,,,,, 당시 어느 신학생은 노동사목연구회 회원이 아님에도, 물질에 눈이 어두워(????) '1일 회원'으로 노동사목연구회에 가입을 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하였다.



처음 듣게 된 J.O.C라는 명칭은 너무도 생소했고, 어색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매년 가톨릭노동청년들과의 만남과 교류를 해나가면서, 이들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당시에는 '노동'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 거부감이 강한 시대였으며, 자신을 노동자임을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 당시는 누구나가 사무실에서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일하는 것만을 동경하던 시대였기에,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였다. 물론 노동자라고 해서 반드시 공장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사람들은 '노동자'라는 말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J.O.C 회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오히려, 자신을 노동자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것이다. 노동자라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노동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J.O.C 회원들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 역시 목수라는 직업(마태 13,55)을 소유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던 것을 생각하며, 노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하느님 역시 6일간의 '노동'을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창조(창세 1장)하셨음을 생각한다면, 노동이 얼마나 숭고하고 신적인 행위인가를 새삼 생각하게 된다.

나는 J.O.C 회원들이 힘겨운 노동 여건 속에서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임을 긍정하며, 그 삶을 비신자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세상의 빚과 소금이 되기 위해, 미안하지만 자신의 삶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J.O.C 회원들은 나에게 진솔하게 자신의 일터에서의 역경과 아픔을 나누어주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이 제자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삶이 바로 올바른 것이고,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임을 알고 있었기에, 용감하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비신자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의 사도로서의 용감하고 숭고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신학생인 나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다.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절감하고 있던 나에게 J.O.C 회원들의 선교 무용담(??)은 신비스러움과 놀라움을 자아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열정들이 후배들에게 계승되지 못하고, 회원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가톨릭장년회로 넘어간 것이 조금은 아쉬움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노동의 가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소중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노동의 형태가 변형될 뿐이지, 그 신성함과 가치는 평가절하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가톨릭노동장년회'도 21세기를 맞이해서 즉 로봇과 컴퓨터가 노동을 하게 되는 시대를 맞이해서, 그에 부응하는 탈바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동 행위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이며 하느님의 속성인 일치와 사랑의 관계 형성은 늘 우리의 소중한 가치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치를 현대에 맞게 되살리고 재형성하는 노력이 조금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거대한 '지구자본주의'의 강력한 힘은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소외시키려고 강력하게 활동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느님은 우리들의 노력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우리의 활동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절망한 제자들에게 발현하셔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삶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의 급격한 변화의 흐름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J.O.C가 어려운 시대적 여건 속에서도 청년의 기개와 열정을 불살랐듯이, 이제는 '가톨릭노동장년회'의 모습으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고대한다.

회원들의 이야기

반갑습니다 2

간호조무사 노동자의 길을 새롭게 시작하다~~

박봉순 안나 / 희망팀



대방동 성당에서 작년 6월에 세례 받은 박봉순 안나입니다, 이승주 레지나의 소개로 가노장의 역사를 듣고 함께 회합하면서 여러 언니들의 권유로 무교였던 제가 대방동 성당에서 교리공부하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희망'팀의 팀원분들이 큰 버팀목이 되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작년 9월에 간호조무사 시험에 도전하고 9월 중순부터 영등포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7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해서 1개월은 환경을 익히고 환자이름 익히면서 당 채크, 혈압, 안약 챙기기 쉬운일만 하면서 지냈고 점진적으로 객담 검사, 변 검사, rectal c/s, 상처(욕창)균검사, 집중치료실에 있는 환자 10분은 하루에 여러 번 혈압체크하고 가래제거, 심박동수, 산소포화도 점검하고 환자상태를 살펴보는게 저의 일이었습니다. 11개 병실을 누비고 다니면서 환자와 눈을 맞추며 손을 잡으며 교감해 가며 씩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3개월 동안 터득하는 동안 선배들의 쌀쌀맞은 어감과 냉대하는 분위기, 수군거리는 간접적인 느낌들의 모습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맘속으로 ‘그래 ! 너희들은 처음에 잘했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신속하게 처리하고 매일 매일 구두상으로 내린 처방들을 놓치지 않고 실천, 해결해 나가니까 조금씩 믿음이 생겼는지 차츰 웃어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인정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손놀림이 정성을 담아 성의 있게 하는 걸 느꼈는지 병원이사님, 간호과장님께서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교육시간에 칭찬을 해주셔서 동료 아줌마들의 질투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61세 남자 환자분이 폐암으로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간호사실 가까운 침상에 누워 계신분 인데 가래, 숨이 차오르고 잠을 못자고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물 먹여 드리고, 등을 두들겨 드리고, 가래 벨으라고 휴지를 챙겨주고 석션 텁으로 가래를 뽑아주고 자주 가서 살펴드렸더니 땀이 와서 울면서 제 손을 잡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저도 눈물이 나와서 슬펐습니다. 제 오빠가 폐암3기로 2년 동안의 투병생활 지켜보았는데 오빠를 보는 듯해서 더 잘해드렸는데 이럴 때 가슴도 아프고 집중치료실에 계신 어르신들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환자분이 돌아가신 후에 처치를 해드리며 잠깐의 기도를 합니다. 어르신! 좋은 데로 가시고 편하게 가십시오.

일단은 간호조무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앞으로 1년 2년 3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환자들을 일관성 있게 돌보려고 다짐해 봅니다.

요즘은 iv(주사)항생제, 수액 다루는 업무를 익혀나가고 있어서 성취감에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 위의 글은 4월 28일 능동어린이대공원에서 있었던 ‘가노장 일반회’에서 노동자의 삶을 사례발표 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회원들의 이야기

반갑습니다 3

사랑하²을 성모님께!

윤희정 클라라 / 다리팀

5월이면 가정의 달이며, ‘성모성월의 달’ 이기에 기쁘고 행복한 달입니다.

성모님!

당신을 기억하며 장미송이를 당신 품에 안겨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 5월의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파이란 초록의 잔디 내음과 장미꽃의 향기와 닳은 듯한 라일락과 아카시아가 만개하여 코끝을 스치는 오월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저는 오월이면 ‘성모성월’이라는 생각보다는 좋은 날씨에 어디 놀러가려는 마음부터 앞서 설레는 철없고 죄 많은 클라라 입니다.

그런 제가 오늘은 여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쓰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함이 밀려 왔습니다. 저에게도 보통의 어머니처럼 저 역시 엄마가 계십니다.



지금껏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친정 엄마에게 편지를 써본 일이 없던 저였습니다.
문득 자식이란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은 4살 때까지의 재통으로 부모에게 해야 할
효도를 대부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저에게는 엄마를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자는 연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처럼,,,

늘 저에게 엄마의 모습은 한 집안의 장녀이자, 맘며느리, 세 자녀의 엄마로써 늘 희생하며 바보같이
퍼주기만 하는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그런 모습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금 더 현명하고
남에게 퍼주듯 본인에게도 남에게 하듯 아끼며 사랑하여 조금은 스마트하게 살았으면 어떠했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저도 시집을 가서 맘며느리로, 늦은 나이에 두자녀의 엄마로 살아가다보니.. 이제야 조금
엄마의 마음을 십분의 일 정도는 조금씩 알아갈듯 합니다....

잘살 때야 퍼주고 인심도 쓰면서 살기는 쉽지만, 없는 상황에서도 남에게 퍼주고 바보처럼 양보하고
살다보면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행복을 주심을,,,

또 다른 엄마 바로 성모님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5월에 정말 다급하게 매듭을 풀어야할 일이 생겨서 ‘매듭을 푸는 성모님께 9일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풀지 못하는 매듭은 무엇일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교우일까? 그러나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먼 친정엄마가 그 기도 지향 속에 가장 큰 자리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자랍시고 기도한다 할 때 저를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남을 위해 아픈 사람,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다보면 저의 기도는 거저들어주심을 알게 되어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의 친정엄마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보았는가? 하고 질문을 하니... 가슴이 정말 무겁기만
합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아름다운 단어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가슴이 미어지는 단어이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주님과 성모님”를 믿고 따르겠습니다’하면서도 정작 내 배꼽 밑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고 아무도 찾지 못하게 꽁꽁 숨겨두었던 것을 아직도 꺼내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늘 성모님께는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통해 봉헌하는 로사리오는 하나도 헛됨이 없이 당신에게 전달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올바른 것을 저희에게 가져다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을 생각하면 웬지 마음이 포근해지고 늘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믿습니다.
어머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온갖 고통을 이겨내시고
온갖 힘겨움을 이겨내신 인내의 어머니이시며 사랑의 어머님 이십니다.

우리의 온갖 수고와 희생과 선행을 기억하시고 늘 보듬아 주시는 우리들의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공경합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인내를 배우고 닮고 싶습니다.

처녀로써 예수님을 성령으로 임태 하셨을 때 천사 가브리엘의 알림을 순종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당신의 겸손과 용기를 배우고 닮고 싶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매일 매일의 감사를 이렇게 노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당신은 인류의 구세주를 가장 비천하고 소박하고 가난한 곳에서 구세주 아기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그곳은 병원이 아니요 말들과 소들이 잠들고 먹고 쉬는 마굿간 소들이 밥을 먹는 구유에 당신의 귀한 아들을 그곳에 탄생시키시어...

이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위로와 희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여인의 순명으로 인류의 구원이 시작되는 대단원의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머님 그런 용기와 희생을 닮고 배우고 싶습니다. 용기를 더해주시고 인내를 더욱 달게 받도록 이끌어 주소서.

어머님 당신의 귀한 아들을 율법의 규정에 따라 성전에 봉헌하셨을 때...

예언자 시메온이 당신에 드린 말씀 ‘이 아이는 많은 이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가슴은 예리한 칼날에 찔리듯 아플 것 이라고....’

예언한 그 말씀을 가슴에 담으셔야 했던 그 무언의 예언... 그것은 과연 사실이었고 정말 가슴에 칼날이 꽂힐 듯 너무나 아픈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지금도 당신은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이들의 고통에 당신은 말없이 눈물과 호느낌으로 저희를 위로 하고 계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면 늘 예수님의 고통보다 성모님의 고통이 더욱 마음 아픈 이유도 아마 제가 엄마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묵주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는 제가 자식과 관련된 일이면 묵주기도를 하고 사는 이유도 자식을 가진 엄마이기 때문이겠죠!

저는 저희 아이들을 통해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저를 다시 밝은 빛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당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밋빛처럼 붉은 묵주알을 통해 언제나 당신께서는 저의 약한 믿음에 불을 지펴 주시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알면서도 매번 한쪽 발을 늘 세상 속에 담그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 편지를 어머니께 드리며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하느님께 대한 완전하신 순명, 자신의 고통보다 몇 배나 더 크게 느꼈을 아드님의 고통을 가슴으로 끌어안으시며 저희에게 마음으로 전해주신 말씀을!!!

장미의 향기가 이토록 코끝을 스치며 저희에게 와 닿는 그 이유가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 모습 때문일 것 같습니다.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미완성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인생을 당신을 통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 번 성찰 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자란 글 솜씨로 당신께 좀 더 알맞은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지만 당신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리라 믿으며 너무나도 고요하고 아름다운 이 날 당신께 이 편지를 바칩니다.

나의 일자리 자본주의가 만든 푸드티~

김갑심 모니카 / 동행팀

대방동 성당 동행팀 김갑심 모니카입니다.

겨울동안 웁츠리고 있던 잎과 꽃들이 밖으로 나와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짓게 하는 봄입니다. 꽃들이 만발한 거리를 보다가도 잊어서는 안될 4. 15 세월호 아이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려옵니다. 세월호 아이들도 꽃잎에 실어 보낼 수 있도록 진실이 빨리 밝혀졌으면 합니다. 비슷한 또래의 딸이 있고 고1인 아들이 있어서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아들이 수련회랑 수학여행도 가야하는데 살짝 걱정되는 4월입니다.



가노장에서 '노동절 행사'를 하는데 회합 때 생각지도 않았던 사례발표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막막했습니다. 요즘처럼 일상의 변화도 없고 직장에 대한 변화도 없어서 그날이 그날 같아서입니다. 저는 주부이면서 직장인입니다. 집이 직장입니다. '바지 직장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바지 직장인' 것을 얘기하기 위해 남편 직장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남편은 '한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 하청의 직원입니다. 1년마다 직장명이 바뀌지만 똑같은 일을 합니다. 동시에 개인사업자 이기도 합니다. '한전' 하청을 받는 사장님은 다른 업체의 하청을 받아서 다시 재하청을 주는 대행업체 같습니다. 1년의 공사비를 나누는 방식인듯하며 다른 사장이 하청을 받으면 사장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만난 사장님은 돈을 잘 주는데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돈만 잘 주지 제가 보기에는 전 사장이나 지금 사장이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남편은 돈 달라고 말을 안 해도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전 사장님은 월급을 잘 안주면서 되도록 늦게 주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지금 사장님은 월급은 월급일에 주고 주말이 겹치면 빨리주기도 해서 마음이 편하다면서 좋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장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이유로 작년 2018년 10월부터 무조건 개인 사업자로 사업등록증을 내도록 일방통보를 하며 같이 일하는 동료가 먼저 개인 사업자로 사업등록증을 내고 우리도 서둘러서 개인 사업자로 사업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월급도 받고 개인 사업자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관련된 세금을 폭탄수준으로 교부받았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등의 세금을 폭탄수준으로 교부받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속상해서 남편에게 수입이 월급 잘 안주는 사장님때 보다 줄어든 것 같다고 말해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생계를 위해 일은 해야 하니까요.... 신랑의 말에 의하면 '그나마 우리는 소득세를 조금 내는 것이라고 동료는 600만원이 넘어서 완전 열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전 사장님과 일하는 동료들은 월급이 밀려있다고 하면서 그냥 좋게 받아들이자고 합니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무너만 사장이라 수입은 있는데 지출거래가 없어서입니다. 자재값도 백만원이 안되는데 동료랑 나누어 지출로 처리하고 그 외에 것은 사업자용이 아니라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많아서입니다. 사업자를 내기 전보다 수입이 50%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 이다보니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봅니다. 매달 월급받아 생활하는 입장이라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남편 사업장 주소를 집으로 등록했고 저는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으니 연말정산도 해야 하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전기공사이다 보니 '한전'에 메일보내고 간단하게 서류정리 정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도 다닐 수 없습니다. 주부인데 돈이 있다면 법적으로 직장인이라 직장인 우대 적금도 들수 있습니다.

남편은 바지 사장님 저는 바지 직장인 남편 월급외에 추가 수입을 저의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일용직도 두분이나 있습니다. 수입나누기를 해야 한다고 세무사가 알려주는데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노동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쳐 계속 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에게도 자꾸 얘기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생각하면서 살자고 이야기 합니다.

인천 '콜렉'도 오랜 싸움 끝에 교섭을 이루어 낸 것처럼 계속 조금씩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세월호도 진실이 밝혀지고 아이들을 떳떳하게 떠나보낼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보다 가노장 회합을 통해 극복할 때가 많습니다. 속속들이 말 못하는 이야기를 회합을 통해 할 수 있고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노장 동행팀에서 함께 하는 기쁨이 큽니다. 그래서 가노장이 참 좋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의 글은 4월 28일 능동어린이대공원에서 있었던 '가노장 일반회'에서 노동자의 삶을 사례발표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행사를 참여하며 **반갑습니다 5**

가노장 일반회에 참여하세요

정선유 카타리나 / 편집부

노동절 & 일반회 행사

일시 : 4월 28일 (일)

장소 : 어린이 대공원

사례발표 : 2명 (노동의 의미 - 노동자로서 기쁘게

생활했었을 때, 어려움 극복했을 때 어떤
희망을 꿈꿨는지)

팀별 도시락 준비



위의 문구는 가노장 1.2.3월호에 실린 공지사항에 띄운 홍보글의 내용이다.

가노장의 활동을 하며 딸의 나이가 어리다는 평계로 주로 회합 위주의 생활을 하던 나에게 올해 편집부의 일원이 되면서 가노장 행사의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졌음을 고백하며 가노장 일반회의 여정을 풀어보려고 한다.

박서이 효주아네스와 함께 전철을 타고 능동어린이대공원에 도착을 하였으며 입구에서 권영숙 언니를 만나고 이강길 파비아노형의 팀장님을 만나며 가노장 일반회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모든 사람이 집합을 하고 나서 회장님의 사회로 ‘가노장 일반회’에 대한 취지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팀별로 나와 간단한 인사가 끝난 후에 사례발표의 시간이 있었다. 동행팀의 김갑심 모니카 언니와 희망팀 박봉순 안나 언니의 노동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끝난 후에는 맛있는 점심식사의 시간이 되었다. 언니들의 사례발표는 어쩌면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대중 앞에서 공개하는 상황임에도 언니들은 삶을 잘 풀어내는 모습이 인상이 깊었다.

팀별로 도시락을 준비하라는 일정이어서 팀별로 도시락을 펼쳐놓고 먹는 그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듯이 기억에 남는다. 주변에서 나누어주는 음식,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을 다른 팀에서 가져와서 먹는 그 모습은 친정식구들과 음식을 먹는 그 편안함이었던 것 같다. 점심식사가 끝난 후에는 다양한 게임의 시간이 되었다. 두팀으로 나누고 보물찾기, 신발 멀리 던지기, 숟가락 이용해서 탁구공 전달하기, 땅지 뒤집기, 둘씩 짹지어 풍선 터뜨리기, 빨강,파랑 종이 뒤집기 등을 하며 참 많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효주 아네스는 다리팀의 윤정, 수빈, 수정이가 놀아주고 맛있는 과자도 같이 먹으며 놀았으며 또한 ‘보물찾기’에서 종이학이 보물이었는데 형제님이 효주아네스에 손에 쥐어주신 종이학을 저에게 보여주며 ‘보물’보물 하며 자랑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다른 팀의 아이들이 비누방울 놀이를 하니 비누 방울을 쫓아 다니며 놀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게임을 하면서 언니들의 남다른 승부욕을 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으며, 나 역시 승부욕을 불태우기도 하였다. 모든 게임이 끝난 후에 두팀에 대한 점수를 합산해서 승리한 팀에게 먼저 시상을 한 후에 진 팀에게도 상을 주고 또한 참가한 모든 사람에게도 개인용 컵을 나누어주고 상으로 받은 상을 팀별로 나누는데 상품이 생필품으로 ‘치약’‘비누’‘칫솔’등을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임경영 임마누엘 신부님의 집전으로 미사를 진행되었으며 미사를 마지막으로 ‘가노장 일반회’의 여정은 마무리 되었으며 또한 사람들과 헤어지고 난 후에 다리팀 언니들과 동물원으로 향하면서 아이들에게 동물을 보여주면서 ‘가노장 일반회’의 비록 하루지만 긴 여정의 끝을 마무리 하였다.

‘가노장 일반회’에 대해 참석을 하고 행사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니 자연스럽게 예전에 내가 가노청을 시작했을 때의 시절이 떠오르는 것은 인지상정? 이었을까 싶다. 어쩌면 가노청을 하지 않은 가노장의 식구들에게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글자 적어본다.

이주 오래전 20대에 수원교구 철산성당의 청년 레지오를 하던 시절에 레지오를 함께 하던 정지영 마리안나라는 친구가 있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가톨릭에서 하는 수련회가 있는데 2박3일의 일정인데 함께 가보면 어떠냐고 제안을 해서 하계수련회에 참석을 하였는데 그게 바로 가노청 수련회였으며 그 이후에 독산동팀에서 회합을 시작하였으며 최정미 챔마언니가 지도투사로 함께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이번 ‘가노장 일반회’에 참여하며 어쩌면 그러한 비슷한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아마도 가노청이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회합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며 또한 그 정신은 다시 가노장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처음으로 ‘가노장 일반회’에 참석을 하면서 예전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성모님께

김경희 데레사 / 누룩팀

온 인류의 어머니
겸손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천사가 주님의 임태를 알렸을 때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당신 뜻대로 이루어 지소서
겸손한 마음 우리도 닮아
이웃과 가족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의 어머니
섬김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임태의 기쁨
시골 길 걸어걸어 애리사벳 문안하여
기쁨을 나눌 때 태중의 아기의
태동의 기쁨!
저희도 이웃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이웃이 우리의 삶과 나눔을 보고
희망과 믿음이 쑥트게 하소서

안내의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일어버린 예수님 찾아 사흘 길....
얼마나 가슴 조이시며 힘 드셨을까?
성전에서 찾으신 예수님!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예수님 말씀!
마음의 새기신 당신의 마음
저희도 자녀들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머니의 인내를 닮아 자녀들과 어려움 지혜롭게
당신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믿음 주소서

통고의 어머니
아픔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예수님을 품에 안으신 당신의 모습
저도 여식을 가슴에 묻으며 고통과 슬픔에
어머니의 고통 알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고통과 아픔이 밀려올 땐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육상하며
어머니를 부르며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어머니의 모범이신 어머니
사랑과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거울이 되어

아름다운 성가정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영광의 어머니
희망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주님께서 하늘에 불러 올리시어
천상의 면류관 받으신 어머니
저희도 어려움과 고통이 닥쳐올 때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세상의 물질의 풍요로움 보다
천상의 복된 삶을 그리워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님께 올리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모든이의 어머니
위로자이신 어머니
나의 어머니! 순례길 걸으며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에
우리가 행하고 뿌려진 말씨들이
주님께 올리는 제사가 되어
아름다운 순례길 마치고
주님 면전에 엎드리면
사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겸손의 어머니
섬김의 어머니
안내의 어머니
통고의 어머니
위로자이신 어머니
나의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모의 달 데레사 드립니다)

동행을 찾아서

노성란 베로니카 / 편집부

이름 : 동행

누가 : 동행팀 팀원들

누구랑 : 송영옥 프란치스코 신부
(대방동 성당 보좌신부님)

언제 : 매월 넷째주 일요일

여디서 : 대방동 성당 202호



■ 팀의 역사는 얼마나 되었는지요?

2015년 1월 ~ 현재까지 4년째입니다.

처음에는 6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 남성분들과 밀알팀으로 분리하여 모임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팀 함께 가자’라는 의미로 ‘동행’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구성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길옥 울리엣따는 현재 신림동에서 살고 있고 삼성산 성당에서 구역장을 맡고 있으며 독거노인 돌봄 생활관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대학 4학년 큰아들과 군대를 간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에서 보람을 갖고 열심히 생활합니다.

오동님 안젤라는 안산에 살고 있고 남편은 현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아들은 대학교 1학년 딸은 고1이며 단란하게 살고 있습니다.

김갑심 모니카는 장승백이 약수터에 살고 있고 단순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남편은 전기 현직에 있고 딸은 직장생활을 하며 아들은 고1입니다.

강경아 울리안나는 삼성산 성당에 다니고 있으며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울리안나는 한의원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으며 1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아들은 사회복지사에 관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으며 딸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김정화 소화데레사는 채소 판매원을 하고 있고 초원농장에서 오이 등 신선한 채소를 판매합니다. 남편은 과천에 있는 사무직에 근무하고 주말부부입니다.

딸은 현재 대입 재수생입니다.

이승주 데레사는 남편은 대방동 신자이고 일을 하고 있으며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고 아기는 이제 1살입니다.

허숙영 아녜스는 시흥동 성당에 다니고 있으며 미싱(1인기업) 작업복(유니풀)을 만들고 있습니다. 남편은 대입전문교육에 종사하고 있으며 딸 한명이 있습니다.

■ 지금까지 회합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어떤 점이었는지요?

애로사항은 없고 가노장 신부님께서 장소를 아낌없이 제공해주셔서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방동 성당 신부님의 배려로 4팀이 이곳에서 팀 회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주임신부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면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됩니다.

■ 가노장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써 하느님은 정말 살아계신다고 느끼며 가노장에 와서 딸과의 대화로 이해하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팀과의 소통으로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 가노장에 오기를 잘했다.

탐방을 마치며

팀원들의 회합시간이 진솔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순서가 되면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너무나 잘하는 팀회합이다.

팀회합 보고서

반갑습니다 8

5월 마구간 팀 보고서 - [‘성인 지옥에 가다’]

〈마른 이삭〉 나눔 (64쪽 ~ 104쪽까지)

일 시 : 2019년 5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30분

장 소 : 인사동

■ 복음 읽기 (요한 14,23 ~ 29)

⇒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 주제 나눔 - 1 ⇒ 〈마른 이삭〉 나눔 (64쪽 ~ 104쪽까지)

- 파리 외각에 있는 가난한 공장지대 빈민가 가난한 노동자, 실업자,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생활하는 있는 노동사제 베르나르~ 매일 매일 일어나는 문제, 사고, 해결사로 정신없이 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노동사제로서의 일을 그만두려한다. 피에르 신부는 그동안 이곳에서 했던 베르나르의 많은 일들을 나열하며 그를 붙잡으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헤매며 선택한 삶에서 노동사제의 길에서 피에르 신부만 남겨 두고 떠난다. ‘하느님과 함께 그들과 함께 있음 자체가 힘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 「처음엔 그들의 음산한 생활환경만 보일 뿐 그들에게도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그들안에서 나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지만 이제 그것을 안다.」
- 열악한 노동자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 삶은 기쁨과 힘듦과 슬픔이 있다.
「가난은 견딜 수 있어도 멀시는 견디기 어렵다.」
- 가난하기 때문에 멀시를 받고, 무시당하는 삶이 힘들고, 물질만능주의 세상이 싫다.
「법이 정한 최저 임금보다 적다니...」
- 그 시대에도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지금도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이 현실에서 여전히 자한당들과 가진자들은 최저임금을 반대와 그것으로 인해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소리내며 소란만 피운다.
「그 자리에 있는 것, 가장 필요한 곳에 있는 것,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하느님이 하실 테니까요.”」

「“사니 전체가 정의에 끌주리고 있는데 자네가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 될 법이나해?”」

- 내가 힘든 노동자 생활을 하던 70년대 80년대, 그때도 우리는 늘 정의에 끌주렸다. 그 땐 가노청, 정의구현 사제단, 프라도 신부님, 파리 외방 신부님, 도시산업 선교회가 함께 하고 학생들도 야간학교 다니면서 정의를 부르짖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가장 강하다는 걸 알잖아”」

「“우리를 부르는 곳에 있는 것이 성소라고 생각하네.”」

- 막 다른 골목에 가장 먼저 오신다는 예수님, 우리 가노장 회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 장이 빈 성당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마음에 와 닿았다.

「“일요일에 성당에 가보았지요. 혼자 앉아있는데 지루했어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더군요.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 주일마다 예비자 교리 재교육을 받고 있는데 매번 남편이 데려다준다. 다녀올 때마다 피정을 다녀온 듯 편하다. 천주교에 관심이 없던 남편이 나중에 교리를 하겠다고 해서 좋았다.

「“아, 모든 일에 하나하나 이유를 따지니 당신이 행복하지 못한 것이오.”

이유를 따지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할 거리를 찾으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었을 때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 100% 공감 한다.

「그들이 예수의 손발을 긁은 못을 박을 때 그는 자기 손발이 멀쩡한 것이 부끄러웠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못하는 것에 자체감이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5.18 기념사에서 했던 말 중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5.18 그 시간에 함께 하지 못 한 것에 미안함에 공감을 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었을 때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늘 긴장하고 상처받고, 어찌 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 매번 던져지는 것 같아 힘들지만 가정안에서의 평화가 나에겐 늘 큰 힘이 되어준다. 가정 안에 있을 때야말로 아무런 바램 없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롭다.

- 피에르 신부님이 활동했던 시대는 제2차 세계 전쟁이 끝나고 힘들었던 시대다. 그 시대 사제는 본당에만 보내졌었는데 그때 두 분의 신부님은 노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

함께 하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노동자의 힘든 삶을 들여다 볼 수 밖에 없는 사제는 늘 힘겨울 수밖에 없다.

「똑같이 피로를 느끼며 똑같은 요구를 가진 공장 친구들과 얼굴을 맞대고 미사를 드리는 것, 같은 손을 가진 그들, 그리스도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분이 사람들 사이에 계실 때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눈빛밖에 없었다.」

■ 주제 나눔 - 2

「“우리를 부르는 곳에 있는 것이 성소라고 생각하네.”」

⇒ 나의 성소는?

- 사회 운동과 가노장 활동이 나의 성소다.
-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 노동의 삶이 나의 성소이다.
- 신앙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 내는 것이 나의 성소다.
- 상처 받고 깨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나의 성소다.

“연대는 공동선을 증진시킵니다”

〈교황, 노동자 협회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탈리아 전국산업재해장애인협회 회원들과의 일반일현 자리에서 연대와 의존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1분마다 2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년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불구가 되는 노동자는 수억 명에 이른다.



특수한 고통에 대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은 9월 20일 목요일 오전 바티칸에서 이탈리아 전국산업재해장애인협회(Associazione Nazionale Lavoratori Mutilati e Invalidi del Lavoro, ANMIL) 회원들과 만났다. 교황은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 노력에 힘쓰는 협회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교황은 “근로 현장에서 영구적인 손상과 심신쇠약을 남기는 부상을 당한 노동자들은 특수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특히 그 장애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양하지 못할 때 더욱 그렇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 모두와 가까이 있겠다”고 말했다.

연대와 보조성에 대하여 보조성이란 중앙권력이 내리는 결정에 의존하지 않고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교황은 “연대는 언제나 보조성과 결합되어 완성되므로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은 “연대와 보조성 사이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연대가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세상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연대라는 이름 아래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과 상품에 대해 교황은 “노동과 생산성 사이의 그릇되고 유해한 등가성의 논리”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숙고했다. 교황은 이러한 시각이 “생산하는 상품의 양이나 부를 기반으로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게 만든다”면서 “사람을 대규모 생산구조 아래서 하나의 톱니바퀴로 전락시킨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빼뚤어진 인식은 “그 속에 착취와 정복의 씨앗을 담고 있다”며 “공리주의적 인간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교황은 우리가 “눈을 떠야” 한다면서 우리 눈 앞에 있는 것은 상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인류로서 형제이자 자매입니다.”

[사설]

공사장 인부 추락사…개선 기미 안 보이는 안전의식

2019.06.10. 19:10

건설 공사장에서 추락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15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앞서 지난달 7일 오후 남구의 한 5층 건물에선 리모델링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1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으며, 그 전달 11일 오전 사하구의 한 제조공장에서는 지붕 보수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9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지난 3월 27일 오후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선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승강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피해자는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의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위험의 외주화’가 산재의 최대 원인으로 불거진 지 오래이건만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기장군 사고의 피해자들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하청업체가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였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가 성행한다. 사고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는 물론 방호망이나 안전벨트를 비롯한 추락에 대비한 보호시설이 아무것도 없었다. 고정돼 있지 않은 널빤지 한 장이 작업자를 받쳐주는 시설의 전부였으니, 사고는 예정돼 있었던 셈이다.

안전관리가 이처럼 허술한 건 ‘솜방망이’ 처벌과 느슨한 법규 때문이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2013~2017년 전국의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안법 위반 사건 1714건에 연루된 피고인의 90.7%가 집행유예(33.46%)나 벌금형(57.26%)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2.9%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산안법을 개정했지만, 경영계와 보수 야당의 반대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데 실패했다. 도급 금지 업종에는 일부 화학업종만 포함됐다.

이런 실정에선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기 어렵다. 안전관리 개선도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윤에 눈먼 자본에게 안전은 여전히 뒷전이고, 그 속에서 노동자는 오늘도 어제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 교리

반갑습니다 10

[더 쉬운 사회교리 해설-세상의 빛] 22.

노인을 위한 특별한 사랑과 관심 (「간추린 사회교리」 222항)

노인을 ‘인생 선배’로 바라보면 어떨까

노인빈곤율 45.7% 고령화사회

고용과 복지 확충 필요하지만 공동체 부모이자 어른으로

노인 공경하는 사회 노력 필요

“엄마의 암 소식을 처음으로 이모에게 전해 들으며,
나는 그 때 분명히, 내 이기심을 보았다. 암 걸린 엄마 걱정은 나중이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나는 오직, 내 걱정뿐이었다.
그러니까, 장난희 땔, 나 박완은, 그러니까, 우리 세상 모든 자식들은,
눈물을 흘릴 자격도 없다. 우리 다, 너무나 염치없으므로.”
(tvN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14화 중)

■ 한국사회가 마주한 무서운 현실 ‘노인빈곤’

2019년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5.7%라는 것을 아시나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며 가난이라는 격동의 한국사 속에서 한강의 기적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이룬 어르신들의 오늘날 상황입니다. 이는 OECD평균 노인빈곤율이 11%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년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낮은 복지혜택, 취업교육의 부재,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저소득, 독거노인, 고독사, 무연고사망과 같은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점점 더 큰 갈등으로 격화될 전망입니다.

노인빈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인문제를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어르신들을 대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무관심이 많은 어르신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 사회를 더 병들게 하고 있다.

■ 더 참혹한 결과, 노인소외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시는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은 늘었는데 노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동안 가족을 부양했지만 미처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사는 것이 어려워 노인들을 돌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가난, 외로움, 병고 등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소외와 냉대는 노년의 상황을 더 절망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 발전과 디지털화 속에서 고용, 경제, 가정,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노인들이 설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노인문제를 경제적 관점으로만 바라봅니다.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무관심은 많은 어르신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 사회를 더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 이 시대 절실히 요구되는 가정, 공동체 정신

노인빈곤은 산업발전과 핵가족화의 결과이지만 가장 먼저 어르신들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자세를 반성해야 합니다. 고령화시대에 정책적으로 노인고용을 늘리고, 노인들에 대한 복지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절실한 것은 노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 변화입니다. 우리 주변의 노인을 돌보는 것을 나의 책임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노인을 부모이자 어른으로서 공경하고 정성어린 효성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차별하는 사회도 희망이 없지만 노인을 경시하는 사회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 노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본질이 사랑이듯, 사회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사회도 큰 가정입니다. 사회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부모님과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인사, 나눔, 관심과 기도,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께 바치는 참된 봉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노인들은 가치와 전통을 전달할 수 있고 젊은 세대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인생 학교이다. 이로써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선익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선익도 추구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고통 속에서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노인들은 의료 서비스와 적절한 지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 (「간추린 사회교리」 222항)

이주형 세례자요한 신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가톨릭노동장년회 담당사제

국제 가톨릭노동장년회 5월 1일 노동절 성명서

인간 존엄성, 공동 경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약속

노동은 인간 존엄성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인간 존엄성은 일하는 세상에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독일과 유럽, 나아가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자동화, 디지털화가 수백만의 사람들을 배제시켜서는 안 됩니다. 무분별한 자원 개발은 돌이킬 수 없는 자연의 손상과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을 야기합니다. 경제의 디지털화는 불안정한 노동 조건을 계속해서 초래하는데, 전 세계 60%의 사람들이 사회 보장과 노동권 없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공식 부문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황 프란치스코와 함께, “배척과 불평등의 경제는 안 된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 경제의 결과, 수많은 사람이 배척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자리도, 희망도, 현실을 벗어날 방법도 없습니다. (복음의 기쁨 53)

우리는 이 디지털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일하며 충분한 임금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국제노동기구(ILO)의 현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 노동자들은 ILO 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사회권과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노동자는 여전히 기본적인 노동권과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노동자협의회를 만들지도, 노동자들 스스로를 조직하지도 못합니다. 평화, 진보, 사회 정의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은 오직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ILO 협약을 비준할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ILO에 따른 공동 경영과 노동권에 대한 전세계적 이해를 촉구합니다!

현재와 같은 노동과 노동 조건은 건강과 죽음에 계속하여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양질의 노동은 건강한 삶의 조건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함을 의미합니다. 유럽연합(EU) 내 각기 다른 국가들에서 최저생계급여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법규가 필요합니다. 다국적기업들은 그들의 모든 생산체계에서 법적으로 노동권과 최저임금표준의 이행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유럽과 세계의 모든 곳에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최저임금에 대하여 요구합니다!

인류와 우리의 어머니인 지구에 대한 무분별한 착취를 종식해야만 합니다. 모두를 위한 평화, 진보, 사회 정의는 오직 ‘지속가능한개발목표’가 전 세계에서 달성을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독일 가노장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국제 가톨릭노동장년회

♡ 4-6월 축일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듯이 그대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길 빕니다."

(요한3서 1,2)

축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평화는 하느님 안에 머물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 이주형 신부-

4월	임지수	프란치스코	2일	나눔과 배움
	김석호			
	최혜련	프란치스카		
	임재복	힐라리오	9일	누룩팀
	오순자	벨라렛다	18일	희망팀
	박정실	마리안나	27일	누룩팀
	김무홍	다두	28일	
	정선유	카타리나	29일	다리팀
5월	지미애	나탈리아	13일	나눔과 배움
	김순주	율리아	22일	희망팀
	박길순	요안나	24일	누룩팀
6월	이성수	그라시아노	1일	호산나
	김근실	율리엣다	16일	누룩팀
	박길옥	율렛다		동행팀
	이수경	율리안나	19일	중복팀
	Fr. 이주형	세례자요한	24일	동반 신부
	박용국	베드로	29일	은하수
	양영일			나눔과 배움

알립니다!

♣ 하계수련회

- 일시 : 7월 20~21일(토, 일)
- 장소 : 대전 동구 청소년 자연 수련관
(042-274-2270 / 대전 동구 산내로 474번길 123)
- 참가비 : 20,000원
- 준비 : 장기자랑
(율동 : 내나이가 어때서), 기타공연
- 출발 : 보문동 15시
- * 팀장님들 인원파악 해주세요!!

♣ 회원교육

- 일시 : 9월 7일(토) 오후
- 장소 : 미정
- 주제 : 미정

♣ 전국협의회

- ☞ 평신도 동반자 양성 교육 수료 후속 모임
- 일시 : 8월 25일(일) 15시
- 장소 : 노량진 가노청 본부
- 주제 :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 사회연대

- ☞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미사
- 일시 : 6월 27일(목) 저녁 7시
- 장소 : 명동대성당
- 주관 : 노동사목위원회/주제 : 감정노동

일정안내

♣ 연합회 기본 일정표

- 팀장회의 : 매월 첫째주 토요일 18시
- 월례미사 : 매월 첫째주 토요일 19시30분
→ 장소 변경(격월) :
 - ✓ 짹수 달(4, 6, 8, 10, 12월) 노량진 가노청 본부
 - ✓ 흘수 달(5, 7, 9, 11월)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 임원회의 : 매월 셋째주 수요일 19시
- ✓ 매주 셋째주 목요일 → 넷째주 수요일로 변경

2019년 서울 가노장 회지 · 미사 순서

월	회 지	미 사
1	동행·은하수· 누룩	신년미사
2		없 음
3		동 행
4	중복·희망·다리 나눔과 배움	은하수
5		중 복
6		희 망
7	마중물·호산나 마구간·등지	마중물
8		마구간
9		호산나
10	정기총회 글 대체	다 리
11		누 루
12		나눔과 배움
비고	순서는 팀 사정에 의하여 바뀔 수 있습니다.	

♣ 7월 미사 담당 : 마중물

♣ 7~9월 회지글 : 마중물, 호산나, 마구간, 등지

- 편집후기 : 회원님 글 감사합니다.
- ○ 회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원님들의 글이 중요합니다.
- ○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현장에서 싸우고 계시는 수 많은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 회원주소가 바뀌면 연합회에 연락바랍니다.

◇ 노동은 육체적으로 힘이 듭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땀을 안 흘리고 노동자들에 기생해서 사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공동선을 생각하고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글로 노동의 현장을 알려주신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서순희 빅토리아 회장님

◇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동은 땀 흘려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힘을 얻어 모든 분야에 매진하는데 공헌합니다. 노동은 신성하고 고귀하고 보람되고 값진 보배입니다.
노성란 베로니카

◇ 2019년 6월호 회지를 준비하면서 저의 게으름을 반성해봅니다. 모두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6월호 회지가 나와야 할 즈음에 벼락치기? 공부를 해내듯 편집 작업을 하고 가노장 식구들을 독려하는 저를 반성하며 편집후기를 마무리해봅니다. 정선유 가타리나



가노장 홈페이지 : <http://club.catholic.or.kr/cwm/>

노동사목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nddsongsamok.co.kr>

서울교구사무국 : 서선미 로사리아 cmi1021@hanmail.net

기톨릭노동장년회 전화번호 : (02) 953-0393

기톨릭노동장년회 사무실 주소 : 우편번호 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95 기톨릭노동사목회관 5층

• 회 · 비 · 입 · 금 · 계 · 좌 ·

1005-802-635733 우리은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회비는 회원이 납부해야할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